



## [기획탐방3] 세대를 잇는 희망, 농어촌의 미래를 밝히다!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

김유인 | 기사입력 : 2025/08/18 [17:40:00]



▲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청사 전경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우리나라 농업은 고령화와 농지 유동성 부족, 청년 농업인의 진입 장벽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2024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촉진해 농지의 세대교체를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으로 농지에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 제도 개선으로 더 넓어진 기회

기존 '경영이양직불사업'은 가입 연령이 74세 이하, 지급 기한이 75세까지로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2024년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으로 개편되면서, 가입 연령이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지급 기한이 84세까지로 확대됐다. 지원 단가도 대폭 상향되어, 매도 방식은 1ha당 연 6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연 48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 사업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해온 만65~84세 농업인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최대 4ha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부터는 일시 지급형도 도입되어, 농지 매도 시 직불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선택지도 생겼다.

#### -경영이양직불사업-

▲ 가입대상 : 최근 10년 이상 영농활동을 한 만 65~84세(매도 조건부 임대는 만65~80세)의 고령농.

▲ 가입방식 :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중 선택.

· 매도 시 농지 매매대금 외에 1ha당 매월 50만원(최대 4ha, 매월 200만원 / 최대 10년) 지급.

· 매도 조건부 임대 시 1ha당 매월 40만원(최대 4ha, 매월 160만원 / 최대 10년) 지급.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임대료 등과 중복 가능.

▲ 대상농지 : 3년 이상 본인 소유 농지(농업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 완료 농지)

▲ 지급방식 : 매월 지급 또는 일시 지급(일시불) 방식 중 선택

게다가 은퇴농업인은 농지이양 후에도 소규모 농지의 경작이 허용되어 농업인 자격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낄 필요도 없다.

#### ■고령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이 만든 변화

일생을 고단함 속에서 묵묵히 우리 나라 농업을 이끌며 식량주권을 수호해 온 고령 농업인의 든든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이 획기적인 제도는 2024년 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전국 3천 2백여 농업인이 가입(약 2,000ha)하였으며, 영암군의 경우 2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약 40여 명의 농업인이 가입하여 월 평균 6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영암에서 한평생 벼농사를 지어온 함한용씨(70대 중반)는 작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영암군 1호 가입자가 됐다. 그는 "그 동안 한국농어촌공사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여러 번 도움을 받았지만, 은퇴를 앞둔 시점에 이 사업을 알게 된 것이 가장 반가웠다", "기존 경영이양직불사업은 가입 연령 제한으로 참여가 어려웠으나, 이 사업은 가입 연령이 높아지고 지급 기한도 84세까지로 대폭 확대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서 농지은행 파트장인 김현주 과장으로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대해 함한용 씨(좌측)가 상담받고 있다.

함씨는 젊은 시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하는 농지매매사업을 통해 영농규모를 늘렸고 힘든 시기 경영회생 지원사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가입하여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함 씨는 “공사 직원의 안내로 서류 준비와 현장 실사를 수월하게 마쳤고, 이제는 매달 은퇴직불금을 받으며 노후 생활의 걱정을 덜게 됐다.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 마음이 편하고, 후배 양성을 통해 농촌의 미래에도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생겨 뿌듯하다”고 전했다.

“안사람도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적당한 나이가 됐을 때 농지이양은퇴직불제에 신청하라고 말해줬다.”는 함씨는 “농사를 짓기 벅차거나, 소소하게 텃밭을 가꾸며 편안하게 생활하고 싶은 고령 농업인이라면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이 안성맞춤”이라고 강조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주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저를 따라 가입한 농가도 벌써 여럿이다. 이런 좋은 정보를 모르는 농가가 많아 아쉬울 따름이다. 여러 농민이 모이는 자리마다 앞장서서 알리겠다”며 은퇴이양 직불사업의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다.



▲ 함한용씨는 농지매도 조건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가입하여 작년 4월부터 매월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일평생 정성을 쏟아 관리한 그의 농지에서는 청년농업인이 부농의 꿈을 일구고 있다.

## ■ 농촌 세대교체와 청년농업인 유입의 마중물

이 사업의 또 다른 핵심은 농지 세대교체 촉진이다. 고령 농업인이 오랜 기간 일궈온 농지를 청년 세대에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여, 농업 경영의 세대 전환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이를 통해 청년 농업인은 진입 장벽이 높았던 농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실제로 청년 농업인이 고령농을 설득하여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농촌 고령화와 농지 유동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적 시도가 될 것이다. 고령 농업인에게는 든든한 노후를, 청년 농업인에게는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기에 부족함 없는 사업인 만큼, 실제 참여자들의 긍정적 경험은 은퇴를 고민하는 고령농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농민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며, 농업의 건강한 세대교체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지원, 그리고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 농업의 건강한 순환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다.